

일곱 시즌 연속 EPL 두자리 득점

손흥민, 리버풀전서 후반 32분 EPL 10호골

토트넘, 시작 15분만에 3실점... 3-4로 패배

손흥민이 두차례나 골대를 때리는 불운을 이겨내고 일곱 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두자리 득점을 달성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수비 불안 속에 리버풀에 패하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접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경기에서 시작 15분만에 3골을 내주는 수비 불안 속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 하샤틀리송의 연속골로 3-3 동점까지 갔지만 디오구 조타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3-4로 졌다.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오른쪽)이 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3 EPL 원정경기에서 오른발로 팀의 두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리고 있다. 더구나 브라이튼은 토트넘보다 3경기 많은 7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일주일 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전반에만 4골을 내쫓던 토트넘은 이번에도 경기 시작 15분만에 3골을 허용했다.

첫 실점과 두 번째 실점은 전반 3분과 5분에 나왔다.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울린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의 크로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 있던 커티스 존스의 슈팅으로 연결되며 첫 실점이 됐다.

불과 2분 뒤에는 코드 하포의 오른쪽 땅볼 크로스를 루이스 디아즈가 넘어지면서 골로 연결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5분만에 순식간에 2골을 잃으

며 끌려갔다.

전반 15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학포를 넘어뜨려 페널티킥을 내렸고 모하메드 살라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0-3이 됐다. 순식간에 3골차로 벌어지면서 일주일 전 뉴캐슬에 당했던 참패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토트넘도 뉴캐슬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다. 수비 조지력을 재장비하며 리버풀의 파상공세를 막아낸 동시에 전반 40분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은 해리 케인의 추격골이 나왔다.

전반 43분에는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감아차기로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를 때리는 불운이

있었다.

일곱 시즌 연속 EPL 두자리 득점까지 한 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후반 9분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골대를 강타했다. 전반에는 오프사이드로 판정됐기에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손흥민 표정에서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끝내 손흥민은 리버풀 수비진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뚫어내며 기어이 골을 만들어냈다. 로메로가 내준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됐다. 손흥민은 리버풀 수비의 뒷공간을 유린하며 단숨에 골키퍼 알리송과 일대일로 맞선 끝에 골을 만들어냈다.

한편 토트넘은 전반 3실점으로 3-4로 무릎을 꿇었다. /뉴시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전북 국학기공 선수들의 모습이다.

“아태 마스터스서 만나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전북서 최고령 선수 출전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 성황리 마무리됐다. 1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북 일원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펼쳐졌다.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인 올해 정상 개최하게 됐고, 전북은 42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총 1220명이 참가,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시·도간 치열한 순위 경쟁보다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이번 대축전에서 전북은 신약(등산)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약은 코로나19로 분산개최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패러글라이딩과 빙상(쇼트트랙), 사격, 승마 종목은 종합9위를 기

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또한 최고령 선수가 전북에서 나왔다.

국학기공 종목에 출전한 김관곤 어르신(여)은 만90세로 이 대회 출전 선수 중 여자 최고령으로 선정됐다.

선수단 입장식이 진행된 개회식에서 11번째로 입장한 전북 선수단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 홍보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는 등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생활체육 부문에서는 전국체육대회처럼 가장 큰 규모가 큰 대회이다”며 “전북 대표로 대회에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감사하며 또 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전국 6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게 된다. /뉴시스

서학아트페어

Ground Seohak

Exhibition & Art Fair

서학아트스페이스 2023. 3. 23 ~ 5. 10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2023. 3. 23 ~ 4. 15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유해란, LPGA 투어 LA 챔피언십 공동 6위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유해란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원서 컨트리 클럽(파7)에서 열린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를 친 유해란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 사야엔 나이트(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LPGA 투어 데뷔 후 최고 성적이자,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공동 7위에 이어 시즌 두 번째 톱10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5승을 거둔 유해란은 지난해 12월 웨일링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해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했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유해란은 1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어 12번 홀(파3), 13번 홀(파5) 연속 보기로 선두권에서 밀려났다.

15번 홀(파5)에서 7m 이글 퍼트에 성공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우승은 해나 그린(호주)이 차지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로 린시위(중국), 아디티 아쇼크(인도)와 연장전에 돌입한 뒤 2차 연장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

2019년 9월 포틀랜드 클래식 이후 약 4년 만이자, LPGA 투어 통산 3승째다. /뉴시스



봉동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최근 경북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초등부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국대회 초등부 단체전 준우승 차지

봉동초 배드민턴부,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종별대회 참가

봉동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최근 경북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초등부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41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열전을 벌였다. 봉동초는 예선리그 6전 전승 및 결선리그 2전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 단체전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봉동초 소속 배드민턴부는 지난 94년 창단, 열악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 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 학생, 학부모들이 오직 배드민턴 하나로 뭉친 결실이다.

장남덕 교장은 “전국대회에서 획득한 준우승은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대회가 학교와 지역을 빛낸 것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 선수로 출전해 지금처럼 기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입성수 지도교사와 이승현 운동부지도

자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준 선수와 매 순간보다 마음줄이며 응원해 준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근대5종 서창완·김선우

월드컵 3차 혼성계주 금메달

서창완(전남도청)과 김선우(경기도청)가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에서 혼성 계주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창완과 김선우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3시즌 월드컵 3차 대회 혼성 계주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382점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한국은 남자 개인전에서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혼성계주에서도 우승하며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뉴시스